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서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 발표

'문화융성' 지우고 평창올림픽 주력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였던 '문화융성' 등 의욕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대회 준비에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13대 과제를 내놴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전 세계적 보급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미래성장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제도 및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제시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문화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또 정책 추진을 통해 올 연말 ▲콘텐츠 산업 매출액 111조4000억원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원 ▲외래관광객 수 1800만명 ▲생활체육 참여율 61.0%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5.0% ▲문화기반시설 수 2875개 등을 성과 목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특히 이번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및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욕이 제기된 일부 사업에 대해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문화융성'이라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업무계획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감사팀 수사 등의 추이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개선 로드맵을 추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에 문체부는 올해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문화융성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부돼있는 점이 있어 구태여 안 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어로도 충분히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이 표현을 빼고) 우리 사업계획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특검의 수사를 통해 조만간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공모사업 심의의 심의위원 운영, 심의지표의 객관성 이의신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전북민의 특별한 선수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

전북은 지난 12월 8일 2017 시즌 전북현대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연간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다.

1월 6일부터는 평범한 시즌권이 아닌 특별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시즌권을 판매한다.

선수카드 시즌권 디자인의 모델은 전북현대 주요 선수들이다. 이번 시즌 선수 카드의 모델로 선발된 선수는 이동국을 비롯해 조성환, 김순태, 신형민, 최철순, 김신욱, 김보경, 이승기, 이재성, 장원호, 에두 까지 총 11명이다.

11명의 선수카드 시즌권은 각각 100매로 한정되어 판매된다. 100매 한정판매 가 완료된 경우 추가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매진이 예상된다. 입장 가능 관람 구역은 E/N석이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판매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만 가능하며 6일 12:00 시부터 시작됐다.

선수카드 구매자들에게는 특별 디자인의 카드를 소지한다는 장점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모든 구매자들에게는 2017 전북현대 캘린더가 지급된다. 또한 카드의 해당 선수 친필 사인을 카드에 받아 전달한다.

전북현대, 선수카드 시즌권 판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은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신형민과 2019년 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의 2014년 세 번째 리그 우승의 주역인 신형민은 앞으로 3년동안 녹색 유니폼을 더 입게 됐다.

2008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를 한 신형민은 국내 최정상급의 수비형 미들필더로 올 해 프로 10년 차인 베테랑 선수이다.

K리그 225경기 출장 17득점 6도움의 기록을 갖고 있는 신형민은 지난 2012년 UAE 알 자지라 팀에서 2년간 활약한 후 2014년 전북으로 이적했다. 2014년 하반기에 전북 유니폼을 입었던 신형민은 김남일과 함께 전북의 리그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신형민은 개인 능력과 안정적인 공수 조율이 탁월하며,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강점이다. 특히 K리그에서 홀딩 능력으로는 이미 검증받은 선수이다.

전북은 신형민과 김보경, 이재성과 함께 '전북중원 삼각지대'를 형성해 상대팀과의 미들필드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하며 이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전북현대, 중원의 핵 신형민과 재계약

익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과 육상팀 지도자 및 선수들이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최근 익산시청에서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한해 놀라운 성과로 익산시 명예를 드높이고 익산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준 선수들을 격려하고, 내년 99회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 익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올해부터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수들은 익산시청 운동부로서 자긍심을 나타내면서,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를 맞아 새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현재 펜싱 국가대표 6명(안성호, 권영준, 송재호, 김지연, 황산아, 최신희), 육상 국가대표 2명(최예은, 김영민)을 보유한 명실공히 실업팀 최강으로 새해를 여는 1월부터 독일 하이델하임 월드컵대회 및 미국 뉴욕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사냥을 위하여 선수촌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익산시청 펜싱팀·육상팀, 새해 힘찬 도약 다짐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골판왕' 오승환(36)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합류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승환은 지난 6일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과 같은 상황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WBC 코칭스태프는 지난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오승환 발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승환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훈련을 시작해 몸을 만드는 것 뿐이다"며 "일단 선수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초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그에게 '한국복귀 시 시즌 50%(현행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대표팀 발탁과 관련해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WBC 대표팀 가입식 감독은 여론을 의식해 오승환을 대표팀 명단에 넣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승환은 필요한 선수"라는 것이 김 감독의 일관된 생각이다. 고 있어 더욱 절실해졌다.

대표팀 주전급 선수들이 속속 이탈하

지난해 초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한국 복귀 시 시즌 50% 출전정지 징계

오승환, "WBC 합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골판왕' 오승환(36)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합류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승환은 지난 6일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과 같은 상황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WBC 코칭스태프는 지난 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오승환 발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승환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훈련을 시작해 몸을 만드는 것 뿐이다"며 "일단 선수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초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그에게 '한국복귀 시 시즌 50%(현행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대표팀 발탁과 관련해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WBC 대표팀 가입식 감독은 여론을 의식해 오승환을 대표팀 명단에 넣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승환은 필요한 선수"라는 것이 김 감독의 일관된 생각이다. 고 있어 더욱 절실해졌다.

대표팀 주전급 선수들이 속속 이탈하



대표팀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세인트루이스 오승환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소속팀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승환은 필요한 선수"라는 것이 김 감독의 일관된 생각이다. 고 있어 더욱 절실해졌다.

대표팀 주전급 선수들이 속속 이탈하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